

# “고위공무원 승진 1순위 후보 32명 탈락”

### 이용호 “심사 과정 ‘깜깜이식’, 후순위자 승진 외부입김 의심”... 탈락 사유 음주운전 17건 가장 많아

현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사과정에서 1순위 후보자가 32명 탈락했는데, 그 심사기준과 과정이 불투명해 외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1순위가 탈락하고, 후순위가 승진한 사례가 총 32건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사가 ‘깜깜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무원단은 승진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국정원 신원조회, 각 부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16조는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 교류기간,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의풍(外風)에 휘둘릴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게다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 7명 중 인사혁신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5명의 명단은 일반에 비공개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이 이뤄지는데 어느 과정에 반영되는지 배일에 가려져 있다.

이용호 의원은 “부처에서 이미 한번 심사를 해 올린 후보군에 대해, 사실상 ‘깜



현장검증하러 왔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이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실을 찾아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깜이’ 상태에서 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장관에게 인사 재판권이 없고, 청와대에서 심지어 과정급 인사까지 다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며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1순위자 탈락 사유로는 음주운전

(17건)이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5건), 징계 전력(5건), 청렴의무 위반(3건), 전문성 부족(2건)이 뒤를 이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경찰청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임명된 것과는 상

반되는 모습이다. 이용호 의원은 “내편에게만 솜방망이를 대고, 아닌 사람에게선 쇠방망이를 쳐벌한다면 누가 정부 인사가 제대로 됐다고 받아들일지”라고 꼬집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 “검문검색 때 여경 함께 배치하라”

### 진선미 “조계사 검문검색’ 성차별 업무지시”

경찰이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성차별적인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찰청 업무지침 공문을 공개했다.

진 의원은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민주노동당 한상균 위원장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조계사에 피신해 있을 당시 ‘무리한 검문검색’ 논란이 일자 해당 공문을 통해 현장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라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내렸다.

지난해 11월21일 당시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조계사 검문검색 관련 업무지시’를 통해 여경을 남자 경찰과 함께 배치해 부드러운 분위기의 검문검색이 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경은 검문검색 전에 양해를 구하고 실제 검문검색은 남성경찰관이 하는 등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검토하고 여경은 조계사 정문과 후문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을 구분하고 동료 경찰인 여성들에게 남성 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이는 여성을 내세워 경찰의 폭력을 가리려한 것이고 여성은 상냥하고 친절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경찰이 된 사람은 없다. 국민 차안을 위해 뛰고 있는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여성 경찰관을 평등한 동료로 대하도록 경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이해찬 “대한민국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무소속 이해찬 의원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박당이 결정된 데 대해 “당에 복귀하여 민생위기, 민주주의위기 한 반도 평화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구하기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복당이 결정된 직후 성명을 내고 “지난 3월15일 당을 떠나면서 저는 약속했다. 세종시민들의 뜻을 묻고 당당히 승리를 제 영광과도 같은 민주당에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상징도시”라며 “7,000여명의 세종시당원들과 함께 정권 교체에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세종시를 기획했으니 완성하려는 시민들의 요청으로 지난 4년간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무위원회의를 소집, 이 의원에 대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이갑용 “새만금 카지노·조선업 구조조정 반대”

(노동당 당대표 후보)

### “합법적 도박시설, 지역경제 활성화·주민 삶의 질에 기여 안해”

### “구조조정은 위기·비용 노동에 떠넘겨... 정부지원 대폭 확대해야”

이갑용 노동당 제8기 당대표 후보는 “새만금 도박장 시도 중단과 노동자만 죽이는 조선업 구조조정 반대”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노동당 8기 대표단 후보 유세를 위해 지난달 30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노동당은 새만금 카지노 설립을 전면 반대한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업 새만금 카지노 설립이 전북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고 할지라도, 국민을 사채와 자살의 늪에 몰아넣는 정책에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는 합법적 도박시설이 실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지 않는다”면서 “동당 8기 대표단 후보들은 경제를 명목으로 국민의 죽음을 조장하는 작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조속히 개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호황기 때에는 올라간 적이 없던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불황을 맞아 대폭 깎이고 있다. 특히 2015년 2만여 명의 하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앞으로 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소위 ‘구조조정’은 모든 위기와 비용을 노동에 떠넘겨 자본의 생존을 도모하는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고용지원 예산을 2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관공물량을 확대하며, 노후선박연령규제를 다시 20년으로 되돌려 새 선박 발주를 유도하는 식으로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해야만 조선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당대표 이갑용 후보, 부대표 이경자·임석영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노동당 당대표단 선거는 9월 22일~10월 9일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10월 10일~14일 투표와 10월 17~21일 결선투표로 진행된다.

/신광영 기자

2016 Heungbu Festival  
우애·나눔·보은·행운

# 흥부제

제24회

2016.10.7(금)~9(일)

사랑의 광장 일원

주최 : 남원시 · 주관 : 흥부제전위원회 · 후원 :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민속국악원 남원시 농·축협

개막식 10.7(금) 19시 / 무형유산 한마당 10.8(토)14시, 사랑의 광장